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

- 양안관계 교류실태 조사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대만,중국 출장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연구 관련)

○ 출장 목적 :

-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중국-대만 간 양안 관계의 발전 현장을 방문함.
-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브리핑 청취,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함.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에 대한 자문을 받음.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지 :

- 대만 타이페이, 중국 상해

○ 출장기간 : 2012. 12. 2~ 12. 9(7박 8일)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 여비 정산: 해당사항 없음(통연협 부담)

○ 출장 조사 주요 내용 : 별첨 참조

II. 출장 조사 주요 내용

1. 주요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등
12. 2(일)	인천	-타이페이			
12. 3(월)			해협교류기금회 (Straits Exchange Foundation)	자문회의 자료수집	SEF 관계자
12. 4(화)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IIR)	워크숍	Liu Fu Kuo 교수 등
12. 5(수)	-타이페이	-중국(상해)			
12. 6(목)			상해 사회과학원	공동워크숍	Liu Ming 교수, Liu A Ming 교수 등
12. 7(금)			복단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자문회의	Fang Xiu Yu 교수 등
12. 8(토)				상해 포동지구 등 개혁/개방 현장 방문	
12. 9(일)	중국(상해)	인천			

2. 주요활동 및 성과

- ☐ 해협교류기금회 (Straits Exchange Foundation, SEF) 방문
 - 일시: 2012. 12. 3(월), 15:00-17:00
 - 장소: 해협교류기금회
 - 주제: “양안관계 발전 과정에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역할과 성과”
 - 해협교류기금회 측의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브리핑, 질의응답
 - 해협교류기금회의 양안관계 관련 자료 수집
- ☐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와
공동 워크숍 참석
 - 일시: 2012. 12. 4(화), 10:00-12:00
 - 장소: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 주제: “중국-대만 정치관계 및 사회문화교류 발전에 대한 대만의 입장과 노력”
 - 대만정치대학교수 Liu Fu Kuo 교수, Wang Juei-chi 교수 등과 공동 워크숍
 - 국제관계연구소(IIR)로부터 자료 수집

□ 상해 사회과학원(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SASS)과 공동 워크숍 참석

- 일시: 2012. 12. 6(목), 14:00-17:00
- 장소: 상해 사회과학원
- 주제: “양안(중국-대만)관계의 발전 과정과 현황”
 - 상해사회과학원 Wang Zhen 부원장, Liu Ming 교수, Liu A Ming 교수 등과 공동 워크숍
 - 상해사회과학원(SASS)로부터 자료 수집

□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방문

- 일시: 2012. 12. 7(금), 10:00-12:00
- 장소: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 주제: “중국-대만 정치관계 및 사회문화교류 발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노력”
 - 복단대학교 Fang Xiu Yu 교수 등과 자문회의
 - 국제관계연구원으로부터 자료 수집

3. 워크숍 및 면담 내용

가. 해협교류기금회(SEF)

□ SEF 연혁 및 활동

- 해협교류기금회(Straits Exchange Foundation)는 1991년 중국의 해협양안교류협회에 대응하는 창구로 해협교류기금회(SEF) 발족함.
 - 즉 SEF는 중국과의 대화창구로 설립되어 양안 간 문서 인증업무를 시작함.
 - 당시 중국은 1개의 중국 원칙에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요구, 대

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1992년 중국(해협회)과 대만(해기회)는 협상을 시작, '92 컨센서스'에 합의함.
 - 양측은 1개 중국에 동의, 각자 표수(단어 수)로 '92 컨센서스' 문안을 작성함.
 - '92 컨센서스': 대만(해기회) 측 83자, 중국(해협회) 72자
 - 대만 야당에서는 '92 컨센서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음.
- 1993년 양측(해협회-해기회)은 제1차 회담을 개최, 4개 항목에 대해 합의함.
 - 이후 1998년 양측 회담이 진행되었음.
 - 1999년 중국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1개 중국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협상은 결렬됨.
- 2008년 대만 마 총통 하에서 양측은 8차 회담을 개최, 18개 항목에 합의함.
 - 이후 중국-대만은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SEF는 협상을 통해 중국-대만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해 왔음.
 - 경제 부문부터 시작(정치는 두 번째)해서 양안 간 Win-Win을 추구함.
 - 양측 협상 도달을 위해 해기회-해협회 내 정부 관리들이 직접 대면해 대담 기회를 마련함.
 - 양안 경제교류협력은 대만의 경제에 도움이 됨(인력, 자금, 유통 등 측면, 특히 운임 절약 및 해상운송 편이 등).
 - 중국 관광객에 대한 대만 관광을 허용(중국인의 대만 관광 허용 후 500만 명이 대만 관광, 지난해 120만 명, 올해 200만 명 목표).
 -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70% 이상이 대만의 정치, 경제 등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 양안의 평화는 양측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교류로 두고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다는 점을 실천해 나감.

□ Q & A

- 남북관계와 양안관계의 차이점은?
 - 통일에 대한 국민의지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과 대만은 1개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대만 내에는 독립(분리)를 주장하는 다수가 존재함.
 - 남북한의 경우 통일방식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남북한 모두 통일을 축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에 SEF와 유사한 기관 설립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중국과 대만은 당 대 당의 관계에서 중국이 해협회를 설립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SEF가 설립되었음.

- 중국과 대만 간 체결한 Egfa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FTA와 Egfa는 거의 같은 역할을 함.
 - 중국-대만 간 Egfa는 양안 간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FTA가 국가 대 국가 간 협정이라면 Egfa는 1개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측에서 보면 성(省) 대 성 차원의 협정임.
 - Egfa에 따라 대만은 309개 중국 제품에 대해 면세 및 관세 혜택 부여, 중국은 276개 품목에 대해 대만에 혜택 부여함.
 - 관세 혜택 품목 수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함.
 - 현재 Egfa 협상을 통해 양안 거래 품목의 80-90%를 무고나세 품목으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임.
 - 2012년 8월 중국-대만은 투자보장에 합의하였으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투자할만한 것은 다함 상태라 투자보장 협정 체결 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음.
 - 국가(정부기관인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SEF 명의로 각종 협상에 임하지만 사실은 대만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함.
 -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대만(경제부)와 중국(상무부) 간에 Egfa 후속 협상이 진행 중임.
 - 해기회와는 별도로 대만에는 다양한 직능, 단체별 협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음(大洋會, 小洋會 등)

- 미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 대만은 和中友日親美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과의 불화 등은 미국도 원하지 않음.
- 해운 및 직항 등은 대만-중국 중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가?
 - Egfa 이후 제3국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줌.
 - 대만에게는 Egfa 체결은 안정감을 주는 측면이 강함.
 - 해운, 직항 등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없음.

*** 참조자료 : 해협교류기금회 소개(첨부1)**

나.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IIR)

☐ Liu Fu Kuo 교수 발제 내용

- 양안관계(중국-대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음.
 - 현재 중국-대만은 18개 협의사항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상호 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대만의 마 총통은 양안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택했음.
 - 사회 및 경제분야의 발전에 우선을 두고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론화 하지 않음.
 - 여전히 양안 간에는 정치적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임.
 - 양안 정치 문제에 대해 대만인들 중에는 마총통의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음.
- 양안 간 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것은 대만의 경우 주변국(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한 원인임.
- 정치관계를 포함한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법은 빈번한 교류협력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음.
 - 현재 양안 간에는 직항 580편/주 취항하고 있으며, 올해 춘절(구정 기간)에는 5-60편이 증편되어 운항하였음.

- 양안 지역간 교류는 마쑹통의 선경후정(先經後政) 방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 이런 방침에 따라 중국-대만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비정치적인 18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음.
 - 이들 대부분이 경제문제에 관련된 것이나 정치문제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님.
 - 지방교류: 모든 중국 성장(省長)이 대만을 방문하였으나 대만의 국내 정치가 복잡해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대만을 방문하지 않고 있음.
 - 대만은 양안 학생교류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중국 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음(대만은 지난해부터 소수의 중국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Liu교수 개인의 중국-대만 통일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음.
 - 대만 정당은 통일지향(국민당), 독립지향(민진당)으로 나뉘어 있음.
 -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은 양쪽 극단을 꺼리고 있음.
 - 개인적으로 대만의 독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
 - 대만 자체에서도 두 극단이 작아져야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실임.

□ Q & A

-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 대만의 대중국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홍콩 등 해외 화교 자본의 중국 진출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정부가 발표한 액수보다도 실제로 2배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대만 기업인은 세금 등의 문제로 해외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관행을 보여왔음.
 - 즉, 대중국 투자에 대한 투자액 규제가 있으나 3국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실정임.
 - 현재 중국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양안 투자는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의 투자는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중국 인건비의 상승으로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동남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중국 내 현지 기업도 중국 내 타지역 등으로 이전을 모색 중임.

○ 양안 관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만은 중국에 대해 단체관광의 경우 전지역을 개방한 상태임.
-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11개 도시만 개방하고 있음(대만이 제한한 것이 아님).
- 양안 관광에서는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의 대만 관광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중국과 대만 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사소한 문제는 나타나고 있음(중국인의 문화 수준이 낮아 침뱉기, 고성, 중국인끼리 다툼 등 발생).
- 그러나 지금은 대만인이 중국인을 대할 때 습관이 되어 중국인은 ‘그렇구나’하는 반응을 보이는 정도임.
- 중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그 이유는 대만 내 교통, 숙박 등의 문제 때문임).
-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대만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쇼핑물 등에서 고가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 중국 학자는 대만을 쇼핑하기 위해 방문한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짜통)을 들면서 대만에는 짜통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
-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해 숙소(Hotel)에 들어가서 TV프로그램(정치)을 보면서 신기해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음(이런 결과는 장기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대만 관광을 통해 중국 민주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 관광객들은 대만의 높은 질서 의식에 놀란다고 함.

○ 양안 교류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정치적 망명 등 사례)은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는가?

- 정치적 망명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 중국 학자, 교수들이 대만을 방문할 때 여권(신분증)을 휴대하지 않도록(중국측 대응) 제한하고 있음.
- 신분증 등이 없을 경우 중국인의 대만 망명(취업 등 포함) 등은 매우 힘들어지게 됨.

○ 최근 양안관계는 어떤가?

- 2006년부터 양안관계는 당 대 당(중국 공산당-대만 국민당)의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
 - 2005년까지 대만 민진당이 정권을 장악, 민진당은 반중국정당임.
 - 2006년 국민당 마총통 하에서 3월 대만 정당 명의로 5개 항목을 중국과 협의함(대만 국민당은 대중국 완화정책 실시).
 - SEF(해협교류기금회)는 비정치적인 양안 문제에서서 창구 역할을 맡아 양안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SEF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만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양안 청소년 교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 현재 대만에서는(청소년에게 있어) 중국이라는 것이 사라질까 우려되는 상황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안 학교 간 교류는 대학생의 학업 정도만 이루어지는 형국임.
 - 대만의 대중국 정책에는 3한6불(3限6不, 중국인의 대만 내 취업, 라이선스 취득 등 제한, 3한6불은 대만의 국내정치환경 때문에 설치한 것임)정책이 있어 중국측이 반감을 가지고 있음.
 - 3한6불의 완화에 대해서 야당(민진당)에서 반대하고 있음.
 - 마총통은 대륙위원회 주임을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3한6불 등)을 바꾸고 완화해 나가고 있어 조금씩 변하고 있음.
 - 대만 대학생은 중국에 유학, 교류를 하고 있음(대만은 중국 41개 대학의 학력을 인정, 2년 전 최고 만 여명이 중국에 유학 중).
 - 지난해 2,000여명 유학생 쿼타를 정했으나 야당에서는 반대했음.
 - 청소년 교류에 대한 대만정부의 입장: 대륙위원회 주도로 의제를 두고 양측에서 주최, 대만은 장려하는 입장임.
 -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류는 없지만 방문은 허용하고 있음.
 - 중국측은 대만정치대학에 교환학생(중국에서 선택된 학생)을 보내고 있음.
 - 중국은 대만학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 상해사회과학원(SASS)

□ 상해사회과학원 소개

- 상해사회과학원은 1958년에 종합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음.
 - 기구 및 체제는 북경사회과학원과 거의 동일하고,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연구함.
 - 상해사회과학원의 특징은 지리적 위치에 의해 양자강 유역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를 동시에 연구함.
 - 한국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상해사회과학원 내 경제연구소는 한국 산업 연구원과, 국제관계연구소는 외교안보연구원과 협정을 체결, 교류하고 있음.
 - 상해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는 기존 유럽연구소와 아세아연구소가 통합해 만들어졌고 40여명 직원, 이 중 30여명이 연구원임.
 - 경제연구소는 주로 기업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양안관계 발전과정에서의 정치적 문제 발생 여부

- 양안관계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돌발사건에 따른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는 없음.
 - 양안관계는 일국양제를 전제로 시작, 별다른 충돌 없이 순조롭게 발전해 왔음.
 - 중국 정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양안관계 발전에 임해 왔음.
 - 굳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사건을 예로 든다면 1994년 천도호 사건이 있음(이 사건은 중국-대만 간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음).
 - 천도호 사건은 대만 관광객을 태운 배가 전복되면서 여행객 40여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 관리시스템 제도 설립, 정부간 관리기구 마련(해협회-해기회와 같은 성격의 정부가 실제로 참여하는 조직), 문제 발생 시 조속 처리 등
 - 언론매체의 보도에 각별히 유의할 것: 대만과 한국은 개방사회로 언론 통제가 어려우나, 중국은 여론의 동향을 통제 또는 제어가 가능함.
 - 한국은 문제 발생 시 언론의 보도 후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천도호 사건은 형사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중국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거칠게 다룬 측면이 있으나, 대만은 (중앙과 지방) 판공실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해결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나 MB 정부 하에서 발생해 정치문제로 비화된 감이 있음.

□ 중국 개혁개방 시 대만에 대한 경계심

-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언제부터 대만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했는지 정확한 시기를 답변하기는 곤란함.
 - 그러나 중국이 일국양제를 주장할 때부터 대만에 대한 경계는 약해졌을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만에 대해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때부터 확실하게 경계심은 사그라 들었음.
 - 대만은 홍콩과 같은 작은 섬 또는 성(省)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임.
-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만에 대해 관용을 보여왔음.
 - 사상에 대한 관용, 사회교류 확대(대만-중국)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도모했음.
 - 이에 따라 극단적 수단을 채택한다는 의식은 약화되었음.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시사: 상호 정치체제가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강한 쪽에서 정치체제를 강요하지 말고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 중국-대만 간 Egfa 체결

- 중국이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와는 FTA를 추진하면서 대만과는 Egfa를 체결한 것에 대한 전략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중국은 개방을 국가 시책으로 삼아 세계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나 개방의 초점은 지역화에서 출발하고 있음.
 - 한편 세계경제의 추세는 세계화로 나아가는 동시에 지역화(유럽 등)도 강화되고 있음.
 - 개방의 초점은 지역화에서 출발그러나 중국이 일국양제를 주장할 때부

- 터 대만에 대한 경계는 약해졌을 것으로 판단함.
- Egfa는 큰 전략에서 경제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정치적 접근은 대만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추진하는 것임.
 - 중국은 Egfa를 통해 대만에 대한 큰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만에게 양보하고 이익을 부여하고자 함.
- 역대 대만 이등회 총통은 중국(대륙)과의 경제협력을 억제하였음.
- 그러나 마잉주(국민당) 총통 시기에 와서 3통 등이 해결되었음.
 - 이 때 중국의 입장은 양안 간 경제교류는 중국-대만 정치관계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졌음.
- 동남아 및 한국 등과의 FTA 추진은 경제 이외 외교전략도 내포하고 있음.
- FTA를 통해 이웃 국가와 안정적 관계 유지, 갈등 요소는 내려 놓는 것임.
 - 한국과의 FTA는 중국의 국가 전략 상 당연한 일임: 한국 같은 중등강 대국과의 FTA를 통해 성장 기회를 향상하고, 기술(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동남아 국가에 있어서는 다른 FTA 전략: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역할도 담당함.
-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도 중국-한국 FTA 체결은 필요함.
- 한중일 관계에서 한중관계는 중요함.
 - 한중관계에서 한중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stance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만이 시장개방에 비적극적이고, 개방을 우려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과의 경제규모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은 대만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됨을 의미함.
 - 중국의 우위산업이라면 부동산 정도를 들 수 있으나 부동산 부문이 대만으로 진출한다면 그 부작용은 심각(가격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산업의 대만 진출은 어려움.

- 정치적인 문제도 작용: 계약 작성시 명칭문제(대만은 中華民國이라는 국호 사용)도 존재함.

□ 중국-대만 간 지역 교류

- 중국 지방정부(省), 연해도시 등은 대만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
 - 대만과 북경, 중경, 천진 등 도시와 교류 중임.
 - 대만과 인근한 복건성, 광둥성 등 연해도시와 경제 및 인적 교류가 가장 많음.
 - 대만은 중국 연해지역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상해 근교에는 대만기업 밀집지역(춘삼?)이 있고, 대만 기업인은 상해에 집을 마련해 거주, 화동지역에는 대만의 기여와 역할이 매우 큼.
- 중국은 대만 기업가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지방, 성(省)으로 취급, 외국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대만 농산품의 경우 가격은 높고 물량은 제한되어 있으나, 중국으로 들어올 때 낮은 관세 부과 등으로 대만 남북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 중국 성(省) 서기들이 대만 상품 구매 등의 이유로 대만을 방문하기도 하였음(여기에는 마잉주 총통 재선을 돕기 위한 목적도 포함됨).
 - 대만계 전자기업 등이 중국 내 공장을 설립한 것은 고용기회 제공, 기술 습득 등 측면에서 중국에게 이익을 주었음.

□ 중국과 북한과의 교류

- 북한 학자와 학생 등은 상해과학원에서 연수, 학업을 위해 상해에 체류하고 있음.
 - 북한 학자의 관심 분야: 중국 개혁개방 이후 민중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복지, 실업 등), 가격 및 인플레이션발생 및 통제, 기술집약적 산업 및 바이오 산업, BOT 등
 - 연수를 마친 북한 학자들 중에는 경제관료로 발탁된 인물도 있으나 구체적인 직위는 알 수 없음.

- 이들 상해 체류 북한 학자 및 학생을 위한 교재 문제 있음.
 - 한국 교재는 불편함.
 - 주로 이들과는 상해 경제발전 경험 등을 질의 응답식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쉬진핑 이후 중북관계

- 쉬진핑 시대에도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 당 대 당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 과거보다는 북핵나이 문제를 야기할 경우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음.
 - 근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노력하면서 과거 무조건 대 북지원이나 방임 등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한국 등과 협조해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양안관계 발전 이후 중국 청소년의 대만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정책 변화

- 중국은 정책적으로 대만인에 대한 사상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음.
 - 중국은 대만 학생의 중국 유학을 환영하였음.
 - 대만에서 중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음.
 - 오히려 대만 천수이볜 시절(민진당 10년) 대만은 중국 역사, 문화 등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음.
 - 현재 대만은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길 원하고 있음.
- 통일에 대한 한국과 양안의 입장은 차이가 있음.
 - 대만 청소년은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이 희박함.
 - 중국은 대만의 민주제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음.

□ 중국 주민(청년)의 대남, 대북 인식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호(好), 좋은 편임.

- 긍정적인 면에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둠.
 - 그러나 한국 언론 매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내 불법어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로 들었음.
 - 동북지방 청소년들은 한국 유학 등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많고, 이들 청년들은 교류를 통해 양국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임.
- 교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움.
 - 체육, 서커스, 대표단 방문 등을 통한 북중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북인식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고, 정치적으로 폐쇄된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참고자료: 치엔다호우(千島湖) 사건(첨부2)**

라. 복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발제

- 중국은 2012년 11월 8일 제18차 전인대에서 양안관계 내용을 포함하였음.
- 기본내용: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조국통일 및 평화발전
 - 양안관계는 2008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음.
- 제16차, 및 17차 후진타오 시절 양안관계는 평화적으로 발전했음.
- 2005.4.29: 후진타오는 대만과의 평화와 안정된 발전을 시도
 - 2006.4.16: 후진타오는 양안발전에 대한 체계를 언급함.
 - 2008.12.31: 대만동포에 고함 발표
- 향후 양안관계는 다음 측면에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함.
- 평화발전의 기본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일관성과 지속성): 남북관계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달라지는데 기본노선 불변이 바람직함.
 - 하나의 중국 원칙(13억 인구에는 대만인 2,3000만명 포함)은 유지됨: 이 원칙은 제17차 전인대 이후에는 중국이 대만을 자극하지 않고 상호

감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양안관계에서 전반위적 교류는 확대될 것임: 정치적 교류는 아직 미미하나 2008년 12월 5일 3통(우편, 통항, 항공)을 실현(남북한의 경우 거의 진척이 없음), 2011년도에는 700만 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실현, 중국정부는 대만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 지도자급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각종 포럼(양안경제교류문화포럼 8차례 개최, 해협포럼, 남경 자금산 순회포럼 등) 등도 활발하게 진행됨.
 - 대만인에 대해 하나의 민족, 통일지향을 기대함: 대만 독립에는 반대, 과거 통일은 중국 주도로 추진되었다면 현재는 중국-대만 양자의 노력을 통해 달성, 중국 대륙의 발전이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하였음.
 - 중국 경제발전에 따른 효과: 중국 빈곤층 6억명 정도가 감소, 1998년 및 2008년 금융위기 시 중국은 인민폐 위안화 평가 절하 하지 않았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그러나 중국은 환경파괴 및 오염 등의 부작용 양산)
- 양안관계의 발전이 북한 및 한반도에 주는 교훈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쟁이 없는 안보환경이 필요하고 요구됨: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전쟁을 치르지 않았음.
 - 북한은 후발우세(後發優勢)를 활용해 경제발전(노동집약적 산업 성장과 발전 활용)을 이루어야 할 것임.
 -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교훈(중국이 해외 화교자본을 활용한 것처럼 남한과의 협력 속에서 남한자본을 유치)으로 삼아야 함.
 - 지도층의 관념(개념)의 변화가 요구됨: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함.
 - 국제신인도 향상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국제정보를 유입하고 최대한 국제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제해야 함)을 결정해야 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외세를 끌어들이면 분단은 고착화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함.

□ Q & A

- 양안 간 교류 및 접촉이 빈번, 활발해지면서 정치 문제화된 사례는 없는

가?

-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는 없음.
- 양안관계를 회고해 볼 때 단절의 시기가 좋았는가 반문하면 이런 예로써 설명이 가능할 것: 1960년대 세대에서 대만이 가장 못사는 나라이고,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교육과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음.
- 지금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어느 체제이든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음.
-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내부의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문제, 그리고 인터넷,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들이 잘 해나가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남북한 접촉을 통해 실망이 따를 수 있으나 인식 변화 등 가능성은 확대될 것임.
-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완성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봄.

○ 대북지원에 대한 견해는?

- 대북지원과 관련해 문제는 북한의 기대치는 높고, 남한은 이를 ‘티’내기로 선전하는 것임.
-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선언’은 MB정부 들어와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진전이 없음.
- 중국 성장(省長)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안관계의 틀 속에서 중앙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성 차원(대만성-중국의 여타 성 또는 市 차원에서 접촉)에서 대만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양안 간 인적교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기업인, 관광객, 근로자, 학생 등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
- 다만 대만의 최첨단기술 분야 교류 등은 제외됨.
- 학생교류는 상해 푸단대에 대만학생이 유학와서 공부하고 있음.
- 북중교류가 확대되는 이유는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임.
- 이런 북중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3성에 북한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과정, 양성반 등도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 중국과 남북한 간의 거리, 밀착 정도는?

- 중국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역사적, 현실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
 - 북한의 로켓(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우주공간의 활용은 어느 국가나 평등하지만, 북한은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직면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미국과 중국 간 격랑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줄어들게 됨.
 -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국의 시각은 통일 후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해야 하고,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미국을 끌어들이어서는 안됨.
- 양안관계 발전과정에서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은 무엇인가?
- 중국은 개혁개방 시 자본주의 침투 및 종교 확산 등을 우려했음.
 - 1992년 덩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개혁개방은 심화되었음.
 - 후진타오 2기에 와서 시장경제가 정착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시장을 개방하였음.
 - 자기방식대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함.

[첨부 1]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소개

<목 차>

- | | |
|-------------|-------------------|
| 1. 양안 정세 | 5. 해기회 조직 구성 및 기능 |
| 2. 해기회 설립연혁 | 6. 해기회 비전 |
| 3. 기금 | 7. 해기회 주요 업무 성과 |
| 4. 해기회 조직도 | |

1. 양안 정세

20세기 중반 이후 대만해협은 군사 교전, 냉전대치와 동시에 민간에서는 상호교류를 실시하는 대립과 협력이 교차하는 시기를 경험하였다. 1987년 1월 대만 정부가 본토 내 친지방문을 허용하면서 양안관계는 교류협력단계로 진입하였다. 무역, 문화, 사회교류활동의 증가에 따라 본토-대만 간의 인적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이에 따라 양안 인민의 권익에 대한 문제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월에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가 설립되었으며, 양안관계는 협력 및 대화의 시기로 진입하였다.

21세기에 들어 본토는 급부상하며 전방위적으로 세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으며, 대만과는 생존, 발전, 번영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 마잉주 총통의 출범 이후 대만은 민주정치가 진일보 발전되었다. 대만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 조건 하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구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양안관계에 있어 대만은 대륙이 경제성장의 기초 위에서 민주자유의 길을 걷기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하여 양안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6월 양안 양회(兩岸兩會)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2012년 8월까지 대만 해기회 및 중국 해협회는 8차례의 ‘강진회담(江陳會談)’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8개 조항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양안 양회는 양안의 평화, 조화로운 발전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10년 6월 양회는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약(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를 체결하여 양안의 경제협력을 제도화단계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대만상품의 본토 수출 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을 통해 본토와 대만의 경제통합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22일 대만은 일본과 ‘투자 자유화·촉진·보호에 관한 협정(有關投資自由化, 促進及保護合作協議)’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경제협력협의를 체결했다. 또한 뉴질랜드와 사업타당성분석을 공동 실시하기로 선포했다.

양안 양회는 제도화된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

정원대륙사무위원회(陸委會)가 2012년 8월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2.5%의 국민이 양안의 제도화된 협력을 통한 양안교류 문제의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또한 58.4%의 국민이 양회가 체결한 18항의 협의가 대만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안관계의 개선은 세계 각국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전 국무부차관보인 윈스턴 로드(Winston Lord)는 현재의 양안관계를 60년 이래 가장 안정되고 희망적인 시기라고 평가했으며, 미국대만협회(AIT, 美國在臺協會) 회장 보루이광(薄瑞光)은 마잉주 총통 집권 후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친밀해 졌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또한 양안 회담에서의 협정체결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시했다.

2. 해기회 설립연혁

양안관계는 복잡하고도 독특하다. 해기회는 정부간 접촉이 없고, 정부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양안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민간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준정부기구이다. 1991년 3월 정부 및 각 부문의 민간 인사들이 공동으로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를 정식 설립하였으며, 꾸전푸(辜振甫) 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1991년 12월 본토에서 또한 유사한 성격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설립하여 해기회의 협상창구가 되도록 했으며, 왕다오한(汪道涵) 선생을 초대 회장으로 임명했다. 약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양안관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해기회는 「대만지역 및 대륙지역의 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의 제4조 「행정원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구에서 대만 인민 및 본토 인민 간 왕래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행정원대륙위원회가 주관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사안의 논의, 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안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해기회 및 해협회는 1991년에 정식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접촉 및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는 “양측이 1개 중국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92컨센서스’에 합의했다. 1993년 4월 양안 양회의 최고책임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꾸왕회담(辜汪會談)’을 개최하여 4개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안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양안정부는 이러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양측간 제도화 협력의 틀이 점차 확립되었다.

하지만 양안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해기회 및 본토 해협회 간의 협력은 부침을 겪었다. 1995년 6월 본토는 일방적으로 양안 양회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이후 양회는 1998년 10월 다시 재개되었으며 꾸전푸(辜振甫) 이사장이 대륙을 방문하여 ‘꾸왕 회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륙 당국은 1999년 7월 재차 해기회와 해협회 간 교류를 중단시켰으며 양안 간의 교류·협력 또한 중단되었다. 양안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해기회는 정부의 위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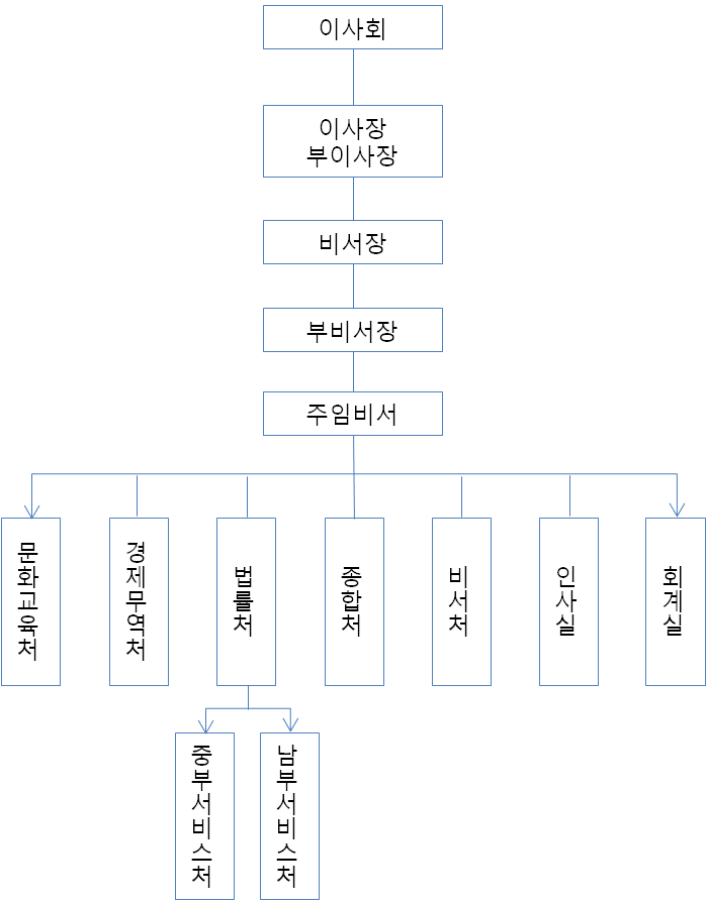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본토의 관련 기구 및 단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2005년 1월 꾸전푸(辜振甫) 이사장이 서거하자 동년 6월 행정원은 전 원장인 장권송(張俊雄) 선생을 해기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2007년 7월 장(張) 이사장이 내각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홍치창(洪奇昌) 선생이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2008년 5월 마잉주(馬英九) 총통 취임 후 해기회 이사회를 통해 장빙쿤(江丙坤) 선생을 이사장으로 파견하였으며 가오쿵렌(高孔廉) 선생을 부이사장 겸 비서장으로 임명하였다. 2012년 9월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이 물러나자 린선썬(林中森) 선생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3. 기금

1990년 11월 21일 개최된 해기회 후원자 회의에서 후원자들이 공동으로 6억 7,000만 위안(신 대만달러 기준, 이하 동일)을 후원하였다. 1991년에서 2011년까지 각계에서 14억 7,300만 위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기금 합계는 총 21억 4,300억 위안이다. 이 중 정부가 16억 위안을 후원하였으며, 각계에서 5억 4,300만 위안을 후원하였다.

4. 해기회 조직도



5. 해기회 조직 구성 및 기능

해기회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기금 모금·보관·운용 및 비서장 임면, 사업방침 결정, 업무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사회는 43~53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중 행정대표는 12인 이상이다. 감사 담당이 6명이며 이중 행정대표가 3명 이상으로 기금, 예금의 회계를 감사하고, 재무상황을 감독하며, 결산장부를 검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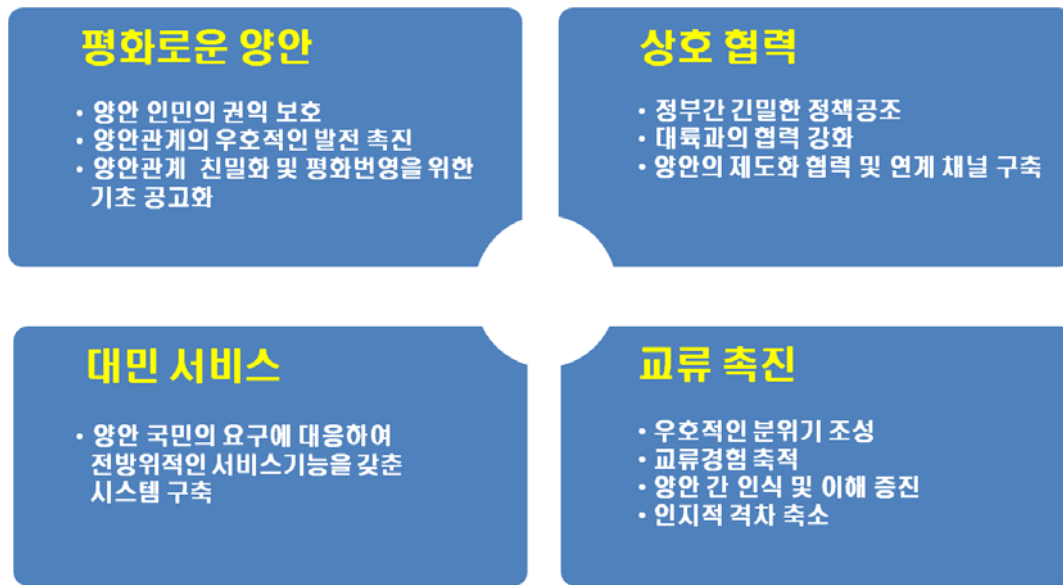
해기회는 이사장 1인이 조직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해기회를 대표한다. 부이사장은 1~3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을 도와 해기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 간에 상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명예 이사장 1인은 이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를 초빙하여 임명한다. 명예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는 모두 무급직이지만 교통비 등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이사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비서장은 1인으로 이사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해임 시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비서장은 이사회의 명령에 따르며 해기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비서장은 1~3인으로 주임비서가 1명이다. 비서장이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거친 후에 임명하며 해임 시에도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해기회는 대만과 본토 간의 인적 왕래와 관련되는 일을 협조·처리하고, 양안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장정에도 대만정부를 대신하여 본토 해협회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하고, 협상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해기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문화교육처, 경제무역처, 법률처, 종합처, 비서처, 인사실, 회계실을 설치하고 중부·남부 서비스처를 설립하였다. 이 외에 해외 및 본토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6. 해기회 비전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전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및 발전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양안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은 양안정부의 책임이며, 양안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문화,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양안은 이제 분리될 수 없다. 양안은 과거에 쌓아올린 기초 위에 양안 발전의 계기를 지속해서 창출하여 양안의 평화 및 번영,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해기회는 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본토와의 협상을 강화해야 하며, 양안 간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방위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안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촉진하고 양안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1. 협력

해기회는 설립 이후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양안 협상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대륙 해협회와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실시하여 ‘양회 관계 및 회담제도 합의(兩會聯繫與會談制度協議)’를 체결하고 양안의 제도화된 협력 및 관계 채널을 구축하였다.

1992년 10월 26~29일 해기회와 본토 해협회는 홍콩에서 ‘문서 검증’ 및 ‘등기우편’에 관한 제2차 회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후 대만 및 대륙에서 “구두성명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시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92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회는 1993년 싱가포르에서 ‘꾸왕회담(辜汪會談)’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양안 공증서 사용 사증 합의’, ‘양안 등기 우편물 조화와 유실물 보상 합의’, ‘양회 관계 및 회담 제도 협의’, ‘꾸왕회담 공동성명’ 등 4개의 합의서를 공식으로 채택했다. 1995년 6월 양회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양측의 노력을 통해 1998년 10월 상해에서 ‘꾸왕회의(辜汪會晤)’가 개최되었으며 ‘쌍방 대화를 강화하고 협상을 제도화하는 문제’, ‘양회 각계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촉진하는 문제’, ‘인민 권익에 관한 안전 및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1999년 7월 본토 당국은 다시금 일방적으로 해기회와의 관계를 중단시키고 양회 간 협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후 양안 당국은 양안의 주말 전용기 운항과 중국인의 대만 관광 등 양안 인민의 권익과 관련한 의제에서 선차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해기회는 양안협력과 관련된 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2008년 5월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양안관계 개

선이 정부의 중요 임무가 되었으며 또한 '92컨센서스'의 기초 위에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해기회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6월 본토과 협상을 재개했다. 6월 11~14일 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은 일행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하여 해협회 천원린(陳雲林) 회장과 제1차 '강진회담(江陳會談)'을 개최했다. 본 회담에서 '양안 농산물 검역 협력 합의', '양안 어로 선원 노무협력 합의', '양안 표준계량·검증협력 합의' 등 3개항의 합의를 체결했다. 양회는 협력을 제도화했으며,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윈윈하며 평화·안전·번영의 양안관계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을 합의했다.

2010년 6월 28~30일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은 일행을 이끌고 충칭을 방문하여 제5차 '강진회담(江陳會談)'을 개최했다. 본 회담에서 '양안 경제협력 구조 합의', '양안 지식재산권 보호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안의 경제·무역 교류에 있어 질서정연한 환경을 구축했으며 대만경제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양안이 호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12월 20~21일 천원린(陳雲林) 회장은 일행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여 제6차 '강진회담(江陳會談)'을 개최했다. 본 회담에서 '양안의 의약·위생 협력 합의'를 체결했으며 더불어 기본에 체결한 합의의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이 체결한 합의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6월 8일 까오(高) 부이사장은 지옌(兼) 비서장 및 쟙리쑹(鄭立中) 부회장과 함께 타이베이에서 제1차 '양안 합의 효과검토회의'를 개최했다. 과거 양안이 체결한 각종 합의의 집행상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2011년 10월 19~21일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은 일행을 이끌고 천진을 방문하여 제7차 '강진회담(江陳會談)'을 개최했다. 본 회담에서 '양안 투자보장 및 투자촉진 합의', '양안 해관 협력 합의'를 체결했으며 '양안 투자보장 및 투자촉진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자유 및 안전 보장에 관한 공동합의'를 발표하여 양안인민의 권익보장을 철저히 하였다.

6.2. 교류

양안 교류는 해기회의 창립 목적 중 하나이며, 정부 또한 양안의 교류 촉진을 해기회의 중요 사명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해기회는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류활동을 모색하였으며 양안 교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 시작했다. 1992년 9월 처음으로 18명의 대륙 기자, 중앙매체 부책임자, 종교관리를 대만으로 초청하여 취재활동을 허락했다. 또한 대만의 장강삼협문화자산보호시찰단, 문화 견학단, 청년방문단, 목화가 등이 본토를 방문하여 교류 전시회를 열었다. 1995년 6월 해기회는 교육부, 문건부, 국과회, 룽위회, 신간국 등을 중심으로 문교 견학단을 모집하여 본토 및 중공문화관리와 직접적인 교류를 실시하였다.

양안관계의 개선에 따라 각종 민간교류가 왕성해지고 긴밀해지기 시작했다. 양회는 협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각 영역에서의 교류 및 상호 방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빌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했으며 상호신뢰를 구축했다. 또 한편으로는 상호 교류 및 방문을 통해 대만 상인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

으며, 관련 합의사항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2008년 6월에서 2012년 9월 말까지 양회는 총 50개의 교류단을 구성하여 경제, 미디어, 사법, 문화 등 각 방면에서의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 또한 뚜렷했다. 이중 해기회에서 조직하여 본토 각지를 시찰한 대만 상인들은 대만상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해기회에서 대만상인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양안의 양회는 대만 상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채널이 되었다.

양안은 친밀한 관계 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이는 우호적인 상호 교류에 달려 있다. 양안 교류는 20여년 동안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요소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해기회는 지속적으로 양안 교류를 추동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협조 하에 질서정연한 교류문화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해기회는 부단히 교류경험을 축적하여 양안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6.3. 서비스

해기회는 제1선에서 양안 간 상호작용을 하는 곳으로 양안 인민의 권익, 생명·재산의 안전, 재난구조, 경영·무역 분쟁, 교류 장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협조한다. 2012년 8월 말까지 양안 간 문화교육, 비즈니스, 친지방문, 관광 등으로 상호 왕래한 인원은 이미 7,802만 명을 넘는다. 다년간 양안 인민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기능 또한 강화되었다. 현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경제·무역 서비스: 대만상인 재정·경제 법률고문단, 대만상인 자문의 날, 양안경제무역강좌
- 법률 서비스: 해기회 본부, 중부, 남부에 모두 변호사 지원단체가 있음.
- 문화교육 및 여행교류 서비스: 문화교육, 여행 등 각종 교류 사항 자문 및 협조·처리, 신변안전 및 재난구조
- 핫라인 서비스: 법률서비스 핫라인, 대만상인서비스 핫라인, 24시간 긴급서비스 핫라인

이 외에 해기회는 신청사 이전 후에 ‘연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대만상인 서비스센터’, ‘법률 서비스센터’, ‘양안인민재난 서비스센터’를 단일화된 창구로 만들어 양안 인민에게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해기회 주요 업무 성과

- 서류 검사증명 안건: 1993년 6월~2012년 9월 말까지 총 2,515,460건
- 사법 및 행정 협조 안건: 1991년 3월~2012년 9월 말까지 총 103,437건
- 양안 공동 범죄 척결 안건: 2009년 6월 25일~2012년 9월 말까지 본토에 지명수배된 211명의 범죄인을 대만으로 송환했으며, 양측 모두 2,300건의 범죄 관련 자료를 교환했다. 또한 65개의 사건을 공동으로 수사하여 해결했으며, 총 4,335명의 범죄혐의자를 체포했다.
- 대만상인 신변안전 협조·처리 안건: 1991년~2012년 9월 말까지 총 2,780건으로 여기에는 급작스런 병으로 인한 사상자 304건, 급작스런 상해 혹은 병으로 인한 입원 328건,

문건에 따른 신변자유 제한 819건, 실종 461건, 강탈에 따른 상해 및 협박 167건, 납치 혹은 불법 구금 134건, 살해 111건, 기타 456건 등이 포함된다.

- 대만상인 경제·무역 분쟁 협조·처리 안건: 1991년~2012년 9월 말까지 총 5,218건
- 양안 인민 신변안전 협조·처리 안건: 2001년~2012년 9월 말까지 총 7,007건
- 양안 여행 분규 협조·처리 안건: 1991년~2012년 9월 말까지 총 67건
- 양안 여행 중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협조·처리 안건: ‘천도호(千島湖) 사건’, ‘백두산(長白山) 교통사고’, ‘연길(延吉) 교통사고’, ‘남투신의(南投信義) 교통사고’, ‘제남(濟南) 교통사고’, ‘흑룡강(黑龍江) 교통사고’, ‘광둥성 여행객 급작 사고’, ‘아리산(阿裏山) 기차사고’, ‘소화(蘇花) 고속도로 교통사고’, ‘길림(吉林) 교통사고’, ‘화련(花蓮) 교통사고’, ‘신죽(新竹) 교통사고’ 등이 그 사례이며, 1991년~2012년 9월까지 총 34건이 협조·처리 되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허가증을 지닌 대륙지역 인민의 귀향 협조: 2002년~2012년 9월 말까지 총 4,611인

[첨부 2] 치엔다오후(千島湖) 사건



치엔다오후(千島湖) 사건이 발생했던 하이웨이호(海瑞号) 사진

<치엔다오후(千島湖) 사건 발생배경>

치엔다오후(千島湖)는 중국 절강성(浙江)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 호수 안에 1078개의 섬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 관광지이다. 1994년 당시 절강성은 아직 지금처럼 부유하지 못했었고, 반면 당시 중국인들은 대만 상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치엔다오후(千島湖)가 관광지로 널리 명성을 얻으면서 국내외의 여행객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 지역의 젊은이 셋이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도 짓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치엔다오후(千島湖)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사건 내용 요약>

1994년 3월 31일, 24명의 대만 여행객이 “하이웨이(海瑞号)호”라는 여객선을 타고 치엔다오후(千島湖)를 관광하고 있을 때, 범행을 계획한 중국 강도 3명이 배를 습격하여 대만 여행객들의 카메라, 시계, 반지 등 귀중품과 달러, 대만 돈, 중국 인민폐 등 현금을 모두 강탈한 후 배에 불을 질러 24명의 대만 여행객 전원과 중국인 가이드 2명, 중국인 여객선 선원 6명 등 32명이 모두 선실에 감금된 채 불에 타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강도, 약탈과 방화 그리고 32명 사망이라는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범죄사건이었는데, 사망자 중 24명이 대만인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강성 공안 당국은 4월 17일까지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만의 각종 매체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당국은 4월 17일에서야 이 사건이 3명의 중국 강도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중국 기자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교통과 통신이 모두 불편해서 항저우(杭州)에서 사건현장까지 차로 8시간이나 걸렸고, 기자들은 “상급 기관의 통지에 따라 기자들의 취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통고를 받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의 기자

는 사건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중국의 신문은 감히 이 사건을 보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대만 기자들이 사망자 유가족으로 가장하여 현장에 잠입하여 몰래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 어떤 기자는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휘부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여 조금씩 사건의 진상을 대만 매체를 통해 보도하였다.

한편 대만의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도 4월 2일부터 중국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기 시작하였고, “인명을 경시한다.” “도적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사건은 양안간 정치문제로 비화하였다.

중국 당국이 당시 이런 사건이 발생시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무시하였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었다. 때문에 대만의 여론이 들끓고 국제 여론이 악화된 후에 이 사건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4월 12일 대만은 “당일부터 양안간의 문화, 교육 교류를 잠시 중단”하기로 선포하였고, “5월 1일을 기해 중국 여행 금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대만 내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이 기회를 틈타 “대만 독립”을 선동하였다. 한 건의 형사 사건이 양안관계를 결정적으로 위협에 빠뜨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었으며, 양안관계가 긴장되고 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경과>

4월 1일 오전 : 원래 3월 31일 저녁에 돌아왔어야 할 여객선이 불에 타고 있는 상태로 발견. 현지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이 도착한 후 처음에는 배에서 관광객과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군대와 경찰, 현지 인력을 동원하여 치엔다오후(千島湖) 주변을 수색. 그러나 실종된 32명을 찾지 못하다가 여객선이 전소된 후에야 배 내부의 선원실에서 32구의 시체 발견. 현지 공안기관은 이 소식을 외부에 전하지 않았고, 외부에서는 현지 지방정부 소식을 봉쇄하고 신문 보도를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에 다른 문제를 감추고 있는 듯하다고 추측 시작.

4월 2일 : 절강성 항주시 경찰국이 법의학자를 파견하여 부검 진행.

4월 4일 : 사망한 대만 여행객 가족 50여명이 현지에 도착.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유족들의 중국 내 체류를 전담.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가 유족들을 돕기 위해 인원을 파견한 수 있다고 제의했으나 중국측이 완곡히 거부.

4월 6일 : 절강성 지방정부가 대만 유가족이 시체를 확인하고 부검 보고서를 보자는 요구를 거절. 유가족의 항의 속에서 사체를 화장. 대만 유가족들은 유골을 가지고 대만으로 귀국. 절강성 지방정부는 애초에 이 사건이 여객선 화재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거짓으로 공표.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만 유가족과 대만 각계에서 강력한 항의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해외 매체들도 각종 보도와 추측을 제기하기 시작.

4월 9일 : 당시 대만 총통이었던 리덩웨이(李登輝)가 직접 중국 공산당은 “도적떼와 같은

집단”이라고 비난.

4월 12일 :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 상무부회장이었던 탕슈베이(唐树备)가 베이징에서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 부회장 스지핑(石齐平)을 만나 이 사건이 우발적인“화재사건”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은 사후처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대만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며, 현지 지방정부가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 동시에 대만은 “당일부터 양안간의 문화, 교육 교류를 잠시 중단”하기로 선포하였고, “5월 1일을 기해 중국 여행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는 중국에 대한 투자안 검토를 전면 중지. 대만 교육부도 대만과 중국간의 문화, 교육 교류를 중지. 중국 여행도 중지. 양안관계 전면 중단.

4월 15일 : 이 사건의 피의자 3명 체포.

4월 17일 : 절강성 공안기관이 이 사건이 “강도, 방화, 살인” 사건이었음을 공식 인정. 대만 매체는 피의자 중 군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제기.

4월 18일 : 당시 중국 리펑(李鹏) 총리가 담화 발표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설명.

4월 21일 : 중국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퇴역군인이었음을 인정. 그러나 대만 유족들은 단 3명의 피의자가 3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 의혹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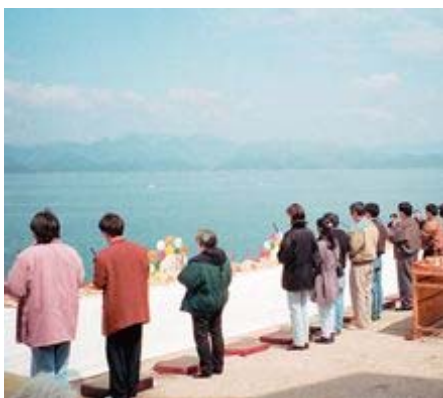
5월 8일 :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峡交流基金会) 부회장 쉬웨이(许惠)가 이끄는 감식 전문가, 법의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 6명과 유족대표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중국측의 설명을 청취.

6월 3일 : 항저우 검찰청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

6월 3일-6월 10일 : 항저우 법원이 이 사건 재판을 진행.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海峡交流基金会)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판을 참관하도록 초청. 그러나 대만 측과 유가족은 중국의 쇼에 참여하기 싫다며 공판에 참석 거절.

6월 12일 : 공판이 종료되고 3명 피고 모두에게 강도죄, 고의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 판결. 1심 판결 후 피고 3명 모두 죄를 인정하며 상소 포기.

6월 19일 :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1995년 3월 31일 일부 유가족이 현지에서 제를 올리는 사진

<사건의 영향 및 평가>

치엔다오후(千島湖)사건은 당시 양안관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1994년 3월 31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월 대만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대만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 “자신은 중국인”이라는 응답이 24.2%, “자신은 대만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응답자가 43.2%였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은 12.3%, “중국과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27.4%,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44.5%였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후 4월말에 동일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신이 대만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증가하고, “자신은 중국인”이라는 응답은 절반인 12.7%로 감소했으며, “자신은 대만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응답자는 45.4%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은 15.5%로 약간 증가하였고, “중국과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17.3%로 10% 가량 하락하였으며,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54.5%로 10% 증가하였다.

<연합보(聯合報)>가 1994년 4월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에서 대만독립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42%로 대폭 상승하였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치엔다오후(千島湖)사건 발생 후 대만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의혹과 불만은 급격히 많아졌고, 양안간의 교류도 일시에 냉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였던 불투명성과 관료주의 등 태도는 대만이 중국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대만 국민이 중국에 실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양안관계가 긴장되고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대만 국민은 중국의 치안 상황이 매우 나쁘며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